

성령의 은사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고린도전서 12:4-12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7월 8일 설교

⁴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⁵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⁶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⁷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⁸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⁹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¹⁰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¹¹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¹²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카리스마

카리스마라는 말 아시지요? 본디 그리스말인데 사람을 끌거나 휘어잡는 힘, 곧 매력을 카리스마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에게 특히 필요한 게 이 카리스마입니다.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이 카리스마니까 카리스마가 있으면 인기가 있습니다. 연예인도 정치인도 다 카리스마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카리스는 은혜 곧 신이 베푸시는 호의라는 뜻인데 이 카리스 뒤에 마가 붙어 카리스마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말 뒤에 “마”가 붙으면 결과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은 결과, 또는 은혜를 받을 때 덤으로 같이 받은 게 카리스마입니다. 머리가 남보다 영리하다든지, 얼굴이나 몸이 잘 생긴 것도 카리스마고 훌륭한 인품, 말 잘 하는 재주, 남은 못 가진 어떤 재능 이런 것도 다 신이 특별히 베푸시는 호의, 곧 카리스마라 보았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으면 사람이 따릅니다. 나보다 영리한 사람, 나보다 잘 생기고 재주도 많은 사람을 왜 따르게 됩니까? 그 사람을 추종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도 많이들 따릅니다. 나보다 나은 그 어떤 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신이 특별히 베푸신 호의라면 그런 사람을 따르는 게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카리스마가 가진 이런 힘을 조리 있게 설명한 사람이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 (Max Weber, 1864-1920)입니다. 인간사회를 이끄는 권위를 세 가지로 나누면서 첫째로 꼽은 게 카리스마적인 권위였습니다. 나머지 둘은 전통적 권위, 법적 권위지요. 사람은 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을 거의 본능처럼 따르기 때문에 이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려 인간 사회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구원과 함께

오늘 본문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본문에 은사라 했는데 그리스 원어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다 은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은사라 되어 있지만 원문은 카리스마가 아닌 경우도 있음. (히 6:4 및 고후 9:15는 도레아 - 롬 5:15는 도레아를 선물로 옮김; 행 13:34 오역, 약 1:17의 은사는 도시스, 선물은 도레마. 그 밖은 거의 카리스마) 신약성경에 카리스마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4:10 한 곳만 빼고는 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은 카리스마라는 말을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뜻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신이 베푸시는 호의 또는 그렇게 호의를 베푸신 결과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말로 은사라 옮겼습니다. 은혜 은 자에 베풀 사입니다. 은혜로, 공짜로 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임금님이 내려주시는 물건을 은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그대로 썼습니다. 뜻이 잘 통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은사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던 은사하고 똑같은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뜻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구원입니다. 은혜를 주실 때 함께 주시는 게 은사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롬 12:6). 그리스 사람들은 신의 호의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몰랐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있습니다. 구원 없는 은사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입

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아예 은사라 부르기도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롬 5:15-16, 6:23). 한 번 구원하시면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롬 11:29).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독생자를 보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곧 은사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담으로 또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은사도 아무 뜻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모르는데 얼굴 잘 생기면 뭐 합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는 있겠지요. 인기 따라 돈도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답니다. 세상이 불에 탈 때 그 좋은 것도 다 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값진 선물인 영생을 못 얻으면 인간성이 아무리 좋아도, 남들 못 가진 재주 수만 가지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많은 은사

본문에 보니 은사가 여러 가지라 했습니다. 구원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만 하나님이 담으로 주시는 이 은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한 것하고 비슷하지요? 성경 여러 곳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방언 통역 등입니다 (고전 12:8-10). 다 특별해 보이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와 지식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가르치는 은사도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과 통하는 은사겠지요 (롬 12:6).

믿음도 은사입니다. 남들은 고개를 가우뚱하는데 난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것도 남다르지요.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건 더합니다. 이건 초자연적 능력입니다. 자연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내가 일으킬 수 있다면, 아픈 사람도 척척 고치고 딱 막힌 문도 열려라 참깨 해서 열 수 있다면 카리스마 가운데서도 최고 아니겠습니까? 방언이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에도 초자연적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 뒤로 가 보면 은사 가운데 다스리는 것도 있습니다 (고전 12:28). 막스 베버가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다스린다 했는데 다스리는 사람은 이렇게 좀 특별한 은사. 좀 희귀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은사 가운데 “서로 돕는 것”도 있습니다 (고전 12:28). 이것도 남보다 뛰어난 겁니까? 다른 말로 “구제의 은사” 또는 “공활을 베푸는 은사”라 했습니다 (롬 12:??).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재주도 지도력의 한 요소라 하긴 합니다만 이런 능력도 카리스마나, 이건 그리스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제를 베풀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다면 그건 신의 호의가 되겠지만 남 주는 재주 보고 와 부럽다 하지는 않습니다.

삶이 곧 은사

돕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공활을 베푸는 은사에 이어 심지어 섬기는 은사도 있습니다 (롬 12:7). 섬긴다는 건 말 그대로 나를 남보다 낮은 자리에 두고 남을 받드는 겁니다. 카리스마는 남으로 하여금 나를 받들게 만드는 신비스러운 힘인데 거꾸로 내가 남을 받드는 게 카리스마라 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 봉사, 이게 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태도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삶이 곧 주 예수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웃을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섬기고 말로도 섬기고 마음으로도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생각, 말, 행동이 다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게 은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특성을 은사라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받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특별한 몇 사람만 받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인기도 얻고 존경도 얻게 만드는 게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가진 게 은사라는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했는데 여기서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모두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믿는 사람 모두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은사의 종류는 물론 다르지요. 그러나 어떤 종류의 은사든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와 함께 은사도 이미 받았습시다. 방언이나 병 고침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만 성령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섬기는 게 은사라 했습니다. 전에 빈민촌에서 일하던 어느 목사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병 고치는 은사는 안 주셨지만 아픈 사람 들쳐 업고 병원으로 뛰는 은사는 주셨다 그랬는데 참 맞는 말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을까,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보면 안 됩니다. 대신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일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그걸 물어야 됩니다. 내 은사가 뭘겠습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것, 내가 잘 하는 거겠지요? 잘 한다고 다 은사는 물론 아니겠지요. 속이는 은사, 흠치는 은사, 그런 건 없습니다. 은사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 보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은사는 성령께서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카리스마는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뭘 하라고 주십니까?

세상 카리스마가 있으면 사람이 따르고 인기가 올라갑니다. 요즘은 돈도 명예도 따라옵니다. 저스틴 비버에게는 인기가 있고 마크 저커버그는 돈 버는 재주가 있습니다. 세상 은사는 나를 높이는 은사, 나에게 유익을 주는 카리스마지요. 게다가 못 가진 사람은 부러워하고 때로는 질투도 하게 되는 그런 카리스마입니다.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을 갈라놓는 은사지요. 사실 이 세상 카리스마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도 싸우고 갈라지고 미워하고 죽이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뜻을 갖고 주시는데 그 뜻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너와 내가 모이고 우리가 다 모여 한 교회를 이루라고 주시는 게 바로 은사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은사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그 모든 은사가 목표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은사 내 은사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에 같은 표현을 세 번 거꾸 쓰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삼위일체가 나오지요? 성부, 성자, 성령을 거꾸로 성령부터 말씀합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이 은사도 저 은사도 한 분 성령께서 주십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앞뒤가 안 맞거나 서로 빼격거릴 수가 없지요. 직임, 곧 직분도 다양하지만 장로를 세우신 주님이나, 집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나 찬양 팀 멤버를 임명하시는 주님이나, 다 같은 주님이십니다. 한 분 주님이 머리가 되어 지휘하시는데 어떻게 같등이 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언급했지만 이 세 분은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교회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십니다. 그러니 모양이나 종류가 아무리 다양해도 그게 서로 다투거나 갈라지게 하거나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익을 위해

은사는 주시는 분이 하나이시고 목표도 하나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니치 한인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둘로 갈라지면 이 교회 저 교회를 따로 또 세우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모아 한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한다는 말이 좀 애매합니다. 뭐가 유익인지 또 누구한테 유익이 된다는 말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고 번역합니다만 그건 설명이지 번역이 아닙니다. 우선은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은사를 받아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되고 주신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용, 활용해야 됩니다.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유익하게 한다는 말의 본디 뜻은 함께 갖고 간다, 모은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마음에 두신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갖고 간다, 함께 갖고 간다, 이바지한다, 서로 잘 맞아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은사의 목적입니다. 같이 하라고, 서로 도우라고, 서로 이바지하여 너하고 내가 잘 맞추어 딱 맞는, 아주 아름답게 조화되는, 그런 하나를 이루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라고요? 예, 교회지요. 오늘 본문 끝 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어 나오는 말씀은 교회를 우리 몸에 비겨 설명하는 말씀인데 우리 몸에 팔, 다리, 머리, 눈, 코, 귀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만 그게 다 모여 결국 이루는 건 한 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노예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모두 다르고 제각각이지만 그게 다 모이면 한 몸, 한 머리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한 몸이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27).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면서 은사도 덩으로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한 데 모여 집을 지으라고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주셨으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멋진 집 교회를 지어야 하 될 것입니다.

은사는 직분

그런데 은사를 받은 그대로 쓰다 보면 혼란이 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너도 나도 그 은사를 쓰다 보니 서로 겨루고 다투고 갈라지는 지경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함께 가져가라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고 주신 게 은사인데 그게 거꾸로 되었습니다.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교회에서 질서 있게, 조화 있게, 목표에 꼭 맞게 쓰라고 마련해 주신 규칙, 준비해 주신 작업장이 있습니다. 바로 직분입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 4:10) 했습니다. 은사는 곧 직분을 맡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직분은 교회라는 한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은사와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잘 가르치는 에베소서 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2).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사도 또는 선지자가 되겠지요? 복음을 전하는 직분에도 그런 은사가 필요하겠지만 말 잘 하는 은사, 사람을 잘 사귀는 그런 은사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목사와 교사도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겠지만 내가 아는 것과 남에게 잘 설명하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목사 또는 교사가 됩니다.

여선교회 회원 가운데 남 먹이는 은사 가진 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음식이나 막 갖고 와 내놓지 않습니다. 여선교회 회장을 중심으로 순서를 정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의논해 질서 있게 먹입니다. 은사를 본디 뜻에 맞게 쓰도록 직분에 따라 쓰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받은 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은사에 맞게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된단든지 장로로 가르친단든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단든지 하는 것이겠지요. 노래 잘 하고 악기 잘 만진다고 마음대로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찬양 팀 멤버로 임명을 받아야지요. 교회의 모든 직분이 그렇게 은사를 활용하는 터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터전에서 은사를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이 뜻하신 유익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서 갑니다.

어떤 은사를?

은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건데 우리가 바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끝 절에 보면 은사를 사모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추구한다는 말인데 은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이겠지요.

할 줄 아는 건 다 은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 했습니다. 나를 돋보이게 해 자랑하고 인기 끌고 돈이나 명예나 굶어모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가고 그래서 너와 내가 합쳐 한 교회를 이루라고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그러니 카리스마를 서로 차지하려고 밀고 당기고 싸우는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은사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사가 뭔지 압니다. 유익한 것이라야 은사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야 됩니다. 나 아닌 이웃을 섬기고 나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추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바른 은사입니다. 그러니 세상 은사처럼 나쁜 은사도 있지만 교회에 있는 은사 가운데도 큰 은사 작은 은사가 나누어집니다. 좋은 은사에도 우열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 분 성령이 주시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똑같은데 그걸 쓰는 내가 문제가 있어 그렇습니다.

목표에 맞아야 좋은 거겠지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것이니까, 함께 모여 하나를 이루라고 주시는 것이니까, 그 뜻에 맞는 것일수록 좋습니다. 방언도 통역까지 하면 그런 은사가 될 수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닌 갈라놓는 일에 은사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시시한 은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인들에게 대신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했습니다. 예언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권하고 꾸짖는 일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참 교회를 이루게 하니 귀한 은사입니다.

좋은 은사

결국 기준이 뭘겠습니까? 사랑이지요? 둘을 하나로 엮는 원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우리가 사랑이신 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 어울려 멋진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리, 사랑의 힘입니다. 아이는 사랑을 모릅니다. 받기는 많이 받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줄 줄도 모릅니다. 사랑을 알면 자란 것이요 어른입니다. 온전해진 겁니다. 은사를 은사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방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도, 구제의 은사도, 심지어 나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정도로 엄청난 구제와 희생의 은사라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세상의 카리스마는 자랑합니다. 군림합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움을 일으키고 아프게 만듭니다. 교회의 은사는 섬깁니다. 사랑이지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은사가 뭔지 모를 때는 돋보이는 걸 구합니다. 초자연적인 은사가 최고겠지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기적을 행하는 능력 아니면 방언이라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은사가 뭔지 알고 나면 그런 게 참 시시해집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뭔지 잘 살펴서 그걸 사랑을 위해 쓰는 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오히려 전에 시시하게 보이던 것들, 청소하는 은사, 쓰레기 나르는 은사, 설거지하는 은사, 무거운 물건 나르는 은사, 정말 사랑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잘 건축해 가는 그런 은사를 구하게 됩니다.

은사, 성령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유익하게 하라 하신 뜻을 살려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권수경 목사)